

용장이라 하였다. 용장에는 구석마, 양지마, 아랫마 등이 있다.

3. 가구 분포

총 57세대가 거주하며 남평 문씨(南平文氏), 담양 전씨(潭陽田氏) 등이 주성으로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강면사(江棉祠)

강면사는 삼우당(三憂堂) 문익점(文益漸)[1329~1398]을 모시는 영정각(影幀閣)으로 남평 문씨 문중의 의례 공간이다. 1943년 옥계서원이 북면 고목리로 이건하고, 삼우당 추모비각과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유허비를 세우고 향사를 지내다가, 1997년 9월에 사우를 창건하고 삼우당의 영정과 위패를 모셨다. 문익점은 목면보급으로 획기적인 의생활 변화에 기여했으며, 1440년(세종 22)에 영의정과 부민후(富民侯)를 추증했고, 충선공(忠宣公)의 시호를 받았다. 산청의 도천서원, 나주의 장연서원, 장흥의 강성서원에 배향돼 있다.

제8절 화성4리(花城四里)[속명 : 성내(城內)]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으로 후정4리와 남쪽은 꽃방과 이웃하고, 서쪽은 범상과 인접하였으며, 북쪽은 용장이다. 마을회관은 1997년에 건립되었다.

2. 마을의 역사

918년 고려 태조 등극 후 성내 지역에 토성을 쌓고 성주(城主)가 있던 도읍지였으나, 을진읍 읍내리로 이읍했다. 이후 이 산성은 폐허가 되고 한촌(閑村)이 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42세대가 거주하며 담양 전씨(潭陽田氏), 김해 김씨(金海金氏), 남평 문씨(南平文氏), 강릉 최씨(江陵崔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이 성내는 800년 전에 읍성(邑城)이었다 하나 유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마을 앞으로 울진 남대천 지류인 월랑천이 흐르고 있다.

제9절 후정1리(後亭一里)[속명 : 뒷당, 후당리(後塘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으로 동해연안이고, 남쪽은 죽변3·5리와 인접하였으며, 서쪽은 비상활주로 건너에 후정 2리가 있다. 북쪽은 북면 덕천리와 인접하고 있다. 또한, 마을의 가운데로 국도가 지나 가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경관이 수려한 해변과 송림으로 주거환경이 좋으며, 전원 농촌이다. 마을회관은 1977년에 처음 건립되었다. 최근에 국립해양과학관이 개관했으며, 해양수산부의 동해연구소와 경상북도의 환동해산업연구원 등 해양관련 연구기관이 다수 조성되어 있다. 후정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펜션 등이 대거 입지하며, 한울원자력본부 죽변사택을 비롯,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주거단지로 변모하였다. 신한울원전 건설로 덕천리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한 덕천마을이 조성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500년경에 담양인(潭陽人) 전지인(田芝麟)이 처음으로 이 마을을 개척하여 집성촌(田氏集姓村)을 이루었다. 그 후 김녕 김씨(金寧金氏), 진주 강씨(晉州姜氏), 예천 임씨(醴泉林氏) 등이 입주하여 마을이 더욱 번성하였고, 지금은 외지인의 유입으로 많은 가구가 증가하면서 숲이 우거지고 조용하던 전형적인 농촌이 아파트단지로 변모하고 있다. 이 마을을 뒷당이라 하는 것은 마을 뒤에 천연적인 못(池塘)이 있었다 하여 부르게 된 이름이며, 자연부락으로 서당마, 백사장, 부들골, 골마, 덕천마을 등이 있다.